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무역협조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리 경 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신흥세력나라들과 인민들이 경제기술적협조를 강화하고 단합된 힘으로 투쟁을 힘있게 벌린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정책을 물리치고 민족의 존엄과 생존권을 지킬수 있으며 강대국들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짧은 기간에 경제적자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9권 470페이지)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무역협조를 강화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무제한한 국제적착취와 략탈에서 벗어나 나라의 경제적자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무역협조를 강화하여야 하는것은 우선 그것이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낡은 예속적이며 략탈적인 낡은 무역관계에서 벗어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현시기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무역관계는 예속적이며 략탈적인것이다.

이것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과의 무역거래에서 혹심한 부등가교환을 강요당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부등가교환의 강요로 해마다 무역적자를 내고 있으며 이것은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새 사회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해결할수 없게 하며 이 나라들을 제국주의자들의 채무국으로 전락시키고있다.

그러나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무역협조는 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한 예속적인 무역을 없애고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략탈적인 무역거래에서 벗어날수 있게 한다.

매개 나라의 대외무역구조의 성격은 국제무역에서의 해당 나라들의 지위에 의하여 많이 규제된다.

오늘 발전도상나라들이 혹심한 부등가교환으로 제국주의자들에게 략탈을 당하면서까지 제국주의자들과 무역거래를 하지 않을수 없게 된 원인의 하나는 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한 《국제분업》의 구조상특성과 관련된다.

지난날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나라들에 편파적인 분업체계를 만들어 놓고 이 나라들의 경제를 기형화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정치적독립을 이룩한 후에도 이 나라들에 식민지적인 편파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새로운 《국제분업》을 강요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한 새로운 《국제분업》에 의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식량, 원료공급기지로 되었을뿐아니라 일부 부분품의 생산 및 수출을 위한 발판으로 되었으며 제국주의경제의 《하청기지》로 되었다.

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한 편파적인 분업체제로 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의 무역구조는 심한 예속성을 띠고있다.

현재 거의 모든 발전도상나라들은 한두가지의 1차산품을 제국주의자들에게 수출하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의 총 수출에서 1차산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0%이상에 달하고있다.

한두가지의 협소한 1차산품을 수출하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이러한 무역수출구조는 이 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과의 무역에서 예속적인 지위에 놓이게 하며 심한 부등가교환을 당하게 한다.

오늘 발전도상나라들에는 분업을 창설하고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조건들이 마련되어있다. 이로부터 발전도상나라들사이에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서로 이익이 되게 무역협조를 실현한다면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하는 《국제분업》의 편파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정한 국제분업을 창설하고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현실적으로 오늘 무역협조를 통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의 원료의 생산 및 소비구조는 다양해지고있다. 무역협조를 통하여 개별적나라들에서는 새로운 원료채취부문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개별적인 발전도상나라들의 원료, 연료, 상품의 품종구성과 수요도 다양해지고있다. 이것은 발전도상나라들사이에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서로 이익이 되게 부족하거나 남는 원료나 상품의 교류관계를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한다.

무역협조를 통하여 발전도상나라들사이에 원료, 자재, 기계설비의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이 나라들에서는 경공업제품은 물론 기계설비를 생산하는 부문들이 창설되고 확대되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무역협조의 강화로 인한 이 나라들에서의 현존공업생산능력의 장성과 새로운 공업부문의 창설은 제국주의나라들에 의존하지 않고도 대외무역을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한다.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무역협조를 강화하여야 하는것은 또한 그것이 발전도상나라들에서 경제적자립을 이룩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은 자주적인 새 사회를 건설하는 길에 들어선 발전도상나라들에 있어서 미룰수 없는 사활적인 문제로 된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자립적민족경제를 창설하여야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억압과 연속을 없애고 완전한 민족적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실제적으로 행사할수 있다.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무역협조는 이 나라들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한다.

발전도상나라들은 관세인하와 무역특혜제를 실시하며 무역에서 여러가지 난관을 극복해나가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우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은 경제지역안에서 실시하고있는 무역의 자유화와 특혜조건 그리고 지역시장을 리용하여 생산된 상품들을 능히 실현할수 있게 되었다. 원료, 자재와 공업가공품 무역이 경제지역안에서 원활히 진행됨으로써 발전된 나라들의 수출입규제조치로 하여 난관을 겪고있던 발전도상나라들의 상품들이 실현될수 있는 큰 상품시장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상품시장은 무역의 안전성을 담보할수 있게 한다. 이 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상품류통분야에서의 협조는 제국주의자들과의 무역에서와 같은 예측과 략탈을 극복할수 있게 한다. 뿐만아니라 발전도상나라들의 유리한 경제적조건과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원료, 자재가 부족하고 기계설비가 없는 나라들에 원료, 자재, 기계설비를 팔아줌으로써 이 나라들에서 경제구조의 기형성과 편파성을 없애고 경제를 다면적으로 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기술무역을 늘임으로써 이 나라들에서 기술을 발전시킬수 있는 실제적인 길을 열어준다.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무역협조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무역특혜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것이다.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무역협조를 강화하는데서 자체의 독자적인 특혜관세체계를 수

립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관세제도는 주권국가들의 대우상의 특권과 관련되는 국제경제 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발전도상나라들에 무역의 《자유화》를 강요하면서도 발전도상나라들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하여 고률의 수입관세를 설정하고있다. 이로 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은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입고있다.

그러나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무역은 그 목적자체가 다른 나라들을 희생시켜 폭리를 얻는 제국주의자들의 무역과는 달리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서로 부족되는 상품들을 보충하는데 있다. 따라서 발전도상나라들은 자체의 독자적인 공정한 특혜관세체제를 세우고 제국주의나라들의 상품에 대하여서는 관세장벽을 더욱 높이면서도 호상간의 무역에서는 관세를 체계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무역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호상 무역에서 특혜적인 가격질서를 공동으로 수립하는것이다.

생산과 유통의 절대량을 차지하고있는 제국주의나라들이 세계시장을 독점하고 그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강화하고있는 조건에서 세계시장가격은 끊임없는 변동과 혼란을 겪고있으며 그 과정에 발전도상나라들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제국주의나라들과의 무역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나라는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은 특혜적인 가격질서를 공동으로 수립하고 낮은 값으로 상품을 팔아주고있다.

특혜가격은 중앙아메리카와 중근동, 아프리카의 발전도상나라들에서 널리 적용되고있으며 석유와 농산물, 화학비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종류의 원료제품무역에 도입되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무역협조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호상 무역에서 물물교환과 청산결제방법을 비롯한 유리한 결제형식들을 실시하는것이다.

식민지통치의 후파로 말미암아 발전도상나라들은 아직 대외무역을 확대할수 있는 높은 수준의 물질기술적토대와 외화지불능력을 충분히 가지고있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발전도상나라들은 외화사정이 매우 긴장하여 절실히 필요한 설비 및 자재들도 제대로 구입할수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경제지역안의 발전도상나라들은 호상간 무역에서 물물교환과 청산결제방법을 비롯한 유리한 결제형식을 실시하고있다. 그리고 민족화폐를 무역결제에 직접 도입함으로써 외화가 부족한 나라들이 무역을 확대 발전시킬수 있는 통화적협조조치들을 실시하고있으며 보험회사들을 창설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하는 높은 보험부담에서 벗어나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무역협조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수송조건을 푸는것이다.

수송조건을 푸는것도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무역협조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발전도상나라들의 수송망은 해상운수, 항공운수를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져있다. 이것은 종주국위주로 조직된 낡은 수송체계로서 이 나라들에 매우 불리한 수송망으로 되고있다.

수송수단과 수송망을 제국주의나라들이 틀어쥐고있는 조건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은 무역을 주동적으로 벌려나가는데서 커다란 난관을 겪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의 배길들은 주로 지난날의 종주국들과 련결되어있으며 수송수단의 대부분이 제국주의나라들에 장악되어있다. 이런 리유로 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은 이웃에 있는 발전도상나라와 무역거래를 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제국주의나라들 주로 이전의 종

주국들과의 무역에 얽매어있다.

제국주의나라들은 이러한 조건을 리용하여 높은 운임과 보험료, 수송료 등을 통하여 2중3중의 착취를 하고있다. 실례로 아프리카나라들이 항공수송을 리용하면 한시간이면 오갈수 있는 거리를 멀리 대륙을 지나 유럽을 경유하여 오는 긴 로정을 거쳐야 하기때문에 20시간이상 걸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운임비를 몇십배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이로부터 발전도상나라들은 수출입상품들을 자체로 실어나를수 있는 수송수단을 마련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이와 함께 발전도상나라들은 서로 힘을 합쳐 공동으로 수송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오늘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무역협조는 끊임없이 강화되고있으며 이것은 이 나라들에서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추진시키고 제국주의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있다.